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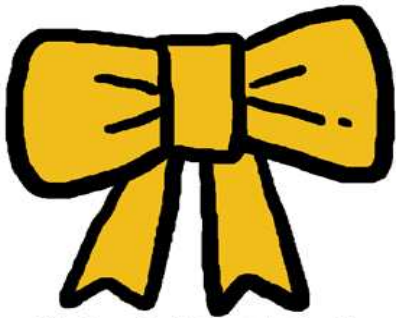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세월호 ...



신이 언어를 만들때
 아내를 잃은 자를 '홀아비' 로
 남편을 잃은 자를 '과부' 로
 부모를 잃은 이를 '고아' 라 하였으나
 자식을 잃은 부모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뭐라 부르지 못했다... ..

[제 1독서] 사도 2, 14, 22-33

[화답송] 시편 16 (15), 1-2과 5.7- 8.9 -1 0.11(◎ 11과 참조)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재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 하리이다.◎

[제 2독서] 1베드 1, 17-21

[복음 환호송] 루카 24, 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 24, 13 -3 5

성가	8시 미사	입당 129	봉헌 221 212	성체 156 162	파견 244
	11시 미사	입당 129	봉헌 221 212	성체 156 162	파견 24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3주일(5월 4일)		부활 제4주일(5월 11일)		부활 제5주일(5월 18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황데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심미카엘(대규)	정프란치스코(일환)	최다니엘(대연)	이바오로(명국)	김길베르트(광호)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정글라라(영희)	문콜롬바(지영)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루카 24, 13-35)

오늘 우리는 루카가 전하는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목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교회는 그 제자들을 클레오파스와 시메온으로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길을 갔다지요. 석양이 물들어 가는 거리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가 당신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아시고 구약에 예언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시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고 회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노을 길을 걸으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목상하는 가운데 클레오파스의 집이 있는 엠마오에 도착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그 마을 이름은 그래서 너무나 정겹고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당신께 모든 희망을 걸고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에 그만 기가 죽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구약의 예언들을 일깨워주시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고, 제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또, 최후만찬 때처럼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먹게 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보게 하셨고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들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듣고 목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이 빵을 떼어주시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역시 미사 안에서 축성된 빵인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같은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 이웃을 통해 나의 친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냉담자들과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전하게 됩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도 또 일회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도 엠마오의 주님 체험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얻은 깊은 성찰을 이웃과 나누고 또, 내가 주님의 몸을 모시면서 느꼈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께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것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미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례를 통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만난 주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도록 파견됩니다.

정 봉 베니뇨 신부
인천교구 모래내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기억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르지만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 중에는 쉽게 잊혀지는 기억이 있고,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도 있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않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겸 베드로
대전교구 신리성지 주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두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그분과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연관된 며칠이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기억들, 그분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과 기적들에 대한 기억들, 이런 기억들은 그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억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빵을 떼어 주시며 깨우쳐 주시자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매 관계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쉽게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늘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분명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하느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글_ 사도 3:15 / 그림_김윤경

말씀의 향기

기도는 나의 생명

초등학생 때부터 성당에 가는 것을 불교 신자이셨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영세를 받지 않고 계속 성당에 다녔다.

1979년 내가 고혈압 동맥경화에 걸려 병원에 7개월간 입원했는데 병원치료 중 투약과 진료가 소용이 없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수십 차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장기입원을 하고 있던 해군 병사 한 사람이 '홍 소령님 같이 놀러 가지지요.' 해서 따라간 곳이 통제부 공소였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공부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더니 차도를 보이지 않던 내 병이 서서히 나아졌고 그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알고 영세를 받았다.

영세 받은 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식사 전 후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이 없다.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는 나의 의무처럼 생각되었기에 집을 나서기 전, 길을 걷거나 차를 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속에 나를 물어놓고 있다. 전세계의 평화와 가정을 위한 기도까지, 기도는 나의 일상이다. 작품을 만들 때, 대화할 때,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 이용할 때가 아니면 늘 기도 속에 산다. 기도는 주 하느님과 함께함이 영광이요, 기쁨이며 사는 날까지 위로이며 감사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전화 문자를 열어보니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다. 급하게 양산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더니 아무 탈 없단다. 역시 아들이었구나. 아들은 몇 번 사고를 낸 일이 있어 재빠르게 아들의 전화를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직통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애가 타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참을 기다리다 며느리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 학교 챙겨 보내고 유아원 데려다 주느라 전화를 못 받아 죄송하단다. 사고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다. 계속 타는 마음으로 계속 아들에게 전화벨을 울렸다.

한 시간여 만에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새벽 1시 청주 집에서 화성 회사로 가는 길 교차로에 적색등이 들어와 차를 멈추고 있는데, 교통량이 없어 신호 무시하고 달리던 차가

아들 차 뒤를 받아 차에서 내려 보니 음주 운전자였다.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 회사에 출근했다가 목과 어깨에 통증이 너무 심해 입원을 했다며 걱정하지 말란다.

매일 바치는 기도.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십사하고 청원기도를 드린 후 목주기도를 바치는데 기도가 약하였는가?

오늘의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순간 스치며 떠오르는 나의 의구심에 놀라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이다. 주님의 은총이다. 주님의 빛이다.

다시 기도를 올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홍종기 아우구스티노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

가톨릭전례

여섯째 계명 :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못한다(탈출 20,14).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마태 5,27-28).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존엄성을 보존하고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인간이 지닌 존엄성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성에 대한 충동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어 내셨다

오늘날 우리는 성의 문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혼전 동거, 불륜, 이혼, 성폭력, 성매매, 동성애, 낙태 등의 행태가 우리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부부 관계와 가정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시키는 일은 인간의 삶에 핵심적인 과제이며, 신앙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간략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성 문제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올바른 시각이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인류의 수천년 역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상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다시 말해 나의 어머니와 누이요 딸로 생각하지 않기에, 성폭력이나 성매매, 불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 정결의 소명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존엄하게 창조

성 충동은 인간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본능에 따라서 사는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 충동을 잘 다스릴 때(창세 1,28), 다시 말해 정결의 덕을 길러 나갈 때, 인간은 동물 수준을 넘어서 하느님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의 삶을 살도록 불리운 것입니다.

정결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희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순간에 이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와 단계에 따라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인내가 요청됩니다. 아동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 등을 맞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5월 4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발바라	이아나스타시아
	연	이스테파노(상준)	찬미성가대
	연	이스테파노(상준)	김점마
	연	이스테파노(상준)	이골롬바(정연)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세월호참사희생자	박데레사
	연	세월호참사희생자	채헬렌
	생	세월호참사희생자가족	박데레사
	생	유데레사	윤사비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관용)
	생	서데레사	하늘의문 Pr.
	생	서데레사	신율리엠타
	생	서데레사	임루시아
	생	6구역 구역원	김유릿다
	생	성루카/우솔라	정로사(화봉)
	생	권카타리나	임루시아
5월 6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가족
5월 7일 수	연	이스테파노(상준)	최베네딕타(수영)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5월 8일 목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생	크리스 페리	김엘리사벳
5월 10일 토	연	세월호참사희생자	익명
	연	박마리아(복임)	이아네스
	생	꾸리아협조단원들	꾸리아
	생	서데레사	이아네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1	189	31	311
헌 금	\$692	\$1,279	\$46.25	\$2,017.25

< 교무금 > \$4510

김경년(2-4) 최환준(4-5) 허은석(3-4) 서춘애(4)
정창희(4) 배점마(3-4) 김영순(4) 이영길(3-4)
신우현(3-4) 한동설(1-6) 황국명(11-12/13, 1-4)
박종영(4-6) 송인근(1-4) 윤순의(3-4) 강신호(3-4)
조우송(6) 김철우(3-4) 이육경(3-4) 박일신(5)
최용일(3-4) 유혜선(1-4) 박호영(5) 김승우(1-4)
성동화(3-4) 김수연(4-5)

< 성소후원금 > \$140

서춘애(4) 허은석(3-4) 정창희(4) 박일신(5)
박호영(5)

< Bishop's Appeal >

서춘애(7-8)

< 감사헌금 >

유혜선 \$100

< 성모의 밤 꽃봉헌 >

서춘애 \$200 김영순 \$50

~~~~ 오늘 간식은 임루시아/김유릿다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2차 헌금 안내

5월 18일 : Catholic Charities

◆ 꾸리아 월례회 : 5월 10일(토) 아침미사 후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5월 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서예교실 : 5월 11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대건산악회 창립 및 회원모집 설명회

교우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한 산악회를 발족하고 함께 산행(걷기)을 하실 회원을 모집하고자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대상 : 산행(걷기)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

문의 : 회장 평현팔 하비에르 510-847-3014

부회장 장진원 베로니카 510-402-3219

◆ 주일학교 여름캠프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장소 : <http://www.goldenvalleycamp.org/>

**5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5-6장**

|        |             |            |
|--------|-------------|------------|
| 2 구역   | 5월18일(일) 6시 | 임장만 베드로 댁  |
| 4 구역   | 5월24일(토)6시반 | 최환준 베네딕토 댁 |
| 6 구역   | 5월17일(토)5시반 | 이기희 베로니카 댁 |
| 7-1 구역 | 5월24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 구역 | 5월17일(토) 6시 | 교육관        |
| 8-1 구역 | 5월10일(토) 5시 | 이재우 야고보 댁  |
| 9 구역   | 5월17일(토) 6시 | 김영준 사비노 댁  |

◆ FIAT 장학금 신청

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고등학교 9-11학년)

마감 : 5월 31일

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72-3995(ext. 106)

◆ 북가주 한인천주교연합 골프대회(청소년사목기금마련)

일시 : 5월 17일(토) 오후 12:30 집결(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참가비 : 부부 \$180, 개인 \$100

도네이션 및 문의 :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5월 11일 : 종강식
- 5월 18일 : 첫영성체(합동미사/영어미사 없음)

**안국학교 소식**

- 5월 10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 <꿈나무 예술제>
- 5월 17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5월 18일 : 교중미사 중 노래 발표